

 <div>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div>		<div>보도자료</div> <div>“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div>		<div> 페이스북 @kcanews</div> <div> 인스타그램 @kca.go.kr</div>	
이 자료는 10월 21일(수) 06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20년 10월 20일(화) (총 7쪽)	담당부서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		
		담당자	박미희 팀장 (043-880-5691) 김선환 부장 (043-880-5692)		

자동차 수리 시 친환경 부품 사용률 매우 낮아

- 친환경 자동차 부품에 대한 소비자와 정비 사업자의 인식 개선 필요 -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0년 6월 말 기준 2,400만대를 넘어섰고, 차량 노후화나 자동차 사고 등에 따른 부품교체 수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친환경 부품 사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동차 친환경 부품 : 법률상 용어는 아니며, 본 조사에서는 「자동차 관리법」에 열거된 자동차 수리 부품 종류 중 자원 재생·재활용 과정을 거친 부품과 관계부처가 고시한 자동차 부품으로서 재제조 부품·중고 부품·재생부품을 자동차 친환경 부품으로 정함.

정부는 2005년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했고, 보험회사도 약관에 명시한 중고 부품, 재제조품으로 부품을 교체할 경우 새 부품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지급해주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이들 부품을 선택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 중고부품 : 고품(古品)을 세척·도장 후 판매하는 범퍼, 도어 등 주로 외관 부품
- 재생부품 : 고품을 수리하여 비교적 간단한 기능 등을 복구시켜 판매하는 부품
- 재제조품 : 고품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부품

□ 친환경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인지도 낮고, 이용률도 매우 낮아

(조사대상) 수도권 거주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로서 최근 1년 이내 자동차를 수리 받은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5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4.36\%$, (조사기간) 2020. 6. 5. ~ 6. 30.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1년 이내에 자동차를 수리 받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친환경 부품 유형 중 중고 부품은 51.8% (259명), 재생 부품은 49.6% (248명), 재제조 부품은 26.2% (131명)만 ‘어느 정도’ 또는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해 친환경 부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 수리 시 92.8% (464명)가 새 부품으로 교체했고, 친환경 부품 이용률은 재생 부품 13.8% (69명), 중고 부품 10.2% (51명), 재제조 부품 2.4% (12명)로 매우 낮았다(복수응답).

친환경 자동차 부품 중 재제조품은 정부가 정한 품질·성능 평가와 공장 심사 등을 거쳐 품질인증을 받고 있으며, 현재 헤드램프 등 48종(승용 39종, 상용 9종)이 재제조 대상 부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친환경 부품 사용의 선행 조건으로 ‘친환경 부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되면’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55.4%(277명)에 달해 친환경 부품의 품질 인증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동차보험의 친환경 부품 사용 특약 내용을 아는 소비자는 17.5%에 불과

자동차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친환경 부품(중고부품, 재제조품)으로 교체 수리 하면 새 부품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20% 또는 25%를 소비자에게 지급해주는 친환경 부품 특별 약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사 대상 소비자 500명 중 자동차 자기차량(자차) 손해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88.0%(440명)에 달했으나, 이 중 친환경 부품 특별 약관 제도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17.5%(77명)에 불과했다. 특약 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한 소비자(363명)의 59.2% (215명)는 미리 알았다면 친환경 부품으로 수리 받았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자동차 보험 가입 경로에 따라 친환경 부품 사용 특약에 대한 인지도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소비자(24.2%, 132명 중 32명)가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한 소비자(14.6%, 308명 중 45명)보다 특약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동차 수리 시 친환경 부품 선택을 위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비 사업자는 자동차 부품 교체 수리 시 새 부품, 중고 부품, 대체 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소비자 500명 중 63.2%(316명)가 정비 사업자에게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해 실제 자동차 수리 현장에서 제대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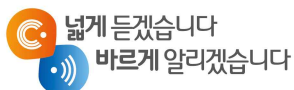
□ 차주가 원한다는 이유로 자동차 정비 사업자의 96.7%가 새 부품을 선호

(조사대상) 서울 소재 자동차 정비사업장 대표 60명, (조사기간) 2020. 6. 5. ~ 6. 30.

자동차 정비 사업자 60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 교체 수리 시 새 부품과 친환경 부품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질문한 결과, 96.7%(58명)가 친환경 부품 보다 새 부품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차주가 새 부품을 원해서’가 98.3%(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친환경 부품의 안전성이나 품질을 신뢰하지 못해서’ 34.5%(20명), ‘새 부품보다 수명이 짧을 것 같아서’ 32.8%(1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중복 응답), 친환경 부품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식 제고가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자동차 관리 사업자 대상 고지 의무 준수를 위한 교육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관련 협회에는 ▲자동차 친환경 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및 홍보 강화, ▲자동차 친환경 부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품 유형별 통합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 한국소비자원은 '국민참여혁신 제안방'을 통해 기관 운영과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대표 누리집(www.kca.go.kr) 접속을 통해 제안·참여 가능]

< 붙임 >

1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 ◇ (조사대상) 수도권 거주 자가용 승용차(10인승 이하) 운전자로서 최근 1년 이내 자동차를 수리 받은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500명
-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4.36\%p$
-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 ◇ (조사기간) 2020. 6. 5. ~ 6. 30.

가. 자동차 친환경 부품에 대한 인식

- 최근 1년 이내에 자동차를 수리 받은 경험이 있는 수도권 거주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친환경 부품(중고 부품, 재생 부품, 재제조 부품)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설문한 결과,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또는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중고 부품이 259명(51.8%)으로 절반을 넘는 수준이었고, 재생부품 248명(49.6%), 재제조 부품 131명(26.2%) 순으로 나타남.

【친환경부품 유형별 인지도】

(단위 : 명, %)

구 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다지 잘 알지 못한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계
중고부품	43(8.6)	198(39.6)	239(47.8)	20(4.0)	500(100.0)
재생부품	47(9.4)	205(41.0)	224(44.8)	24(4.8)	500(100.0)
재제조부품	120(24.0)	249(49.8)	115(23.0)	16(3.2)	500(100.0)

나. 자동차 수리 시 교체 부품 종류

- 자동차 부품 교체 수리 시 어떤 부품으로 교체 수리했는지 설문한 결과,
- 새 부품이 464명(92.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재생 부품 69명(13.8%), 중고 부품 51명(10.2%), 재제조 부품 12명(2.4%) 순이었음.

【자동차 친환경 부품 이용 실태(중복응답)】

(단위 : 명, %)

구 분	새 부품	재생 부품	중고 부품	재제조 부품
응답자	464(92.8)	69(13.8)	51(10.2)	12(2.4)

다. 친환경 부품 교체 수리 의향

- ☐ 소비자들에게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친환경 부품으로 교체 수리할 것인지 설문한 결과,
- ‘친환경 부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되면’이 277명(55.4%), ‘지금보다 친환경 부품의 교체 비용이 더 저렴해지면’이 123명(24.6%), ‘교체가 필요한 부품을 새 부품처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이 82명(1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친환경 부품으로 교체수리 선행 조건】

(단위 : 명, %)

구 분	응답자
친환경 부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277(55.4)
지금보다 친환경 부품의 교체 비용이 더 저렴해지면	123(24.6)
교체가 필요한 부품을 새 부품처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	82(16.4)
친환경 부품의 사용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되면	18(3.6)
계	500(100.0)

라. 자동차 보험 약관 내용에 대한 숙지 여부

- ☐ 자동차 보험 계약 시 자기차량 손해 보험에 가입했는지 설문한 결과, 440명(88.0%)이 가입했다고 응답해 자차보험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자기차량 손해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 440명 중 중고 부품 등 친환경 부품으로 교체 수리 시 보험회사가 수리비 일부를 소비자에게 지급해 주는 보험 약관 내용(이하 친환경 부품 사용 특약)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77명(17.5%)에 불과해 자차 보험의 약관 내용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자차 보험 가입자의 친환경 부품 관련 약관 내용 인지 여부】

(단위 : 명, %)

구 분	알고 있다	모른다	계
친환경 부품 관련 약관 내용 인지 여부	77 (17.5)	363 (82.5)	440 (100.0)

□ 친환경 부품 사용 특약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여부는 자동차 보험 계약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보험설계사와 계약한 경우 24.2%(132명 중 32명)가 친환경 부품 사용 특약 약관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 인터넷(다이렉트 보험)으로 계약한 경우는 14.6%(308명 중 45명)만 친환경 부품 사용 특약에 대해 알고 있어 보험설계사와 계약한 집단이 인터넷으로 계약한 집단보다 특약에 대한 인지도가 9.6%p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계약 유형별 친환경 부품 관련 약관 내용 인지 여부】

(단위 : 명, %)

구 분	친환경 부품 관련 약관 내용		계
	알고 있다	모른다	
보험 설계사와 계약	32(24.2)	100(75.8)	132(100.0)
인터넷(다이렉트 보험)으로 계약	45(14.6)	263(85.4)	308(100.0)
계	77(16.0)	363(84.0)	440(100.0)

마.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설명의무 준수 실태

- 자동차 부품을 교체 수리 받을 당시 정비사업자로부터 교체 수리 부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지 설문한 결과,
-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84명(36.8%)에 불과해 자동차 수리 현장에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자동차 부품 교체 수리 부품 선택 안내 여부】

(단위 : 명, %)

구 분	들었다	듣지 못했다	계
교체 부품 선택 여부 설명	184(36.8)	316(63.2)	500(100.0)

- ◇ (조사대상) 서울 소재 자동차 정비사업장 대표 60명
-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면접 설문 조사
- ◇ (조사기간) 2020. 6. 5. ~ 6. 30.

가. 자동차 수리 시 부품 선호도

- 자동차 정비 사업자 60명에게 부품 교체 수리 시 새 부품과 친환경 부품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설문한 결과, 58명(96.7%)이 친환경 부품보다 새 부품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해 대부분의 자동차 정비 사업자가 새 부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비 사업자의 부품 교체 수리 시 부품 선호도】

(단위 : 명, %)

구 분	새 부품	친환경 부품	계
사례수	58(96.7)	2(3.3)	60(100.0)

- 정비 사업자가 친환경 부품보다 새 부품을 더 선호하는 이유(중복응답)는 ‘차주가 새 부품을 원해서’가 57명(98.3%)으로 가장 많았으며, ‘친환경 부품의 안전성이나 품질을 신뢰하지 못해서’ 20명(34.5%), ‘새 부품보다 수명이 짧을 것 같아서’ 19명(3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정비 사업자의 새 부품 선호 이유(중복 응답)】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차주가 새 부품을 원해서	57(98.3)
친환경 부품의 안전성이나 품질을 신뢰하지 못해서	20(34.5)
새 부품보다 수명이 짧을 것 같아서	19(32.8)
친환경 부품을 구입하기 어려워서	10(17.2)
새 부품보다 수익성이 떨어져서	2(3.4)
영업지침으로 친환경 부품을 사용할 수 없어서	3(5.2)